

서해안 시대의 풍요로운 아산

강　　육

자유기고가

아산시는 충청남도 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천안시, 서쪽으로는 당진군, 남쪽으로는 예산군 및 공주시, 북쪽으로는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인접해 있다. 아산시는 차령산맥의 한 지류가 되는 광덕산 연봉이 동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를 분수령으로 하여 서북으로 길게 평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해로는 아산만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으로는 봉강천, 서로는 삽교천, 중앙으로는 곡교천 등이 위치한다. 이 유역을 따라 기름진 옥토와 국내 유수의 온천수 등이 분포되어 있다.

일면 농촌, 일면 어촌을 동시에 형성하고 있는 아산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서해안 지역 발전의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이다. 또, 아산항 종합개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현충사, 도고온천, 아산온천, 광덕산, 삽교호 등 유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해 지역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으로 지목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산시는 예로부터 여러 전쟁이 있을 때마다 주요 격전지였다. 역사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구태여 빌지 않더라도 청일전쟁이 있을 때 “아산이 깨어지니, 평택이 무너지니.”하는 속담이 생겼을 정도니 격전지로서의 그 양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아산시의 주요한 문화 유적 중의 하나인 현충사는 온양온천에서 4km 떨어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방화산 기슭에 있다. 이 곳은 이순신 장군의 사당으로 공이 성장하여 무과급제 할 때까지 사셨던 곳이다. 충무공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지 108년이 지난 숙종 32년(1706)에 이 곳에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을 세웠으며, 1707년 숙종께서 친히 현충사란 현판을 사액하였다.

1932년 일제 때에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결성되어 사당을 중건하였고, 1945년

해방 후에는 매년 4월28일에 전 국민의 뜻으로 충무공 탄신기념제전을 올려 공을 추모하여 왔다. 1966년에는 일생을 충의에 살고 나라를 구하신 높은 덕과 충성을 기려 이 곳을 성역화하고 현충사를 증건하였으며, 1974년에 종합적인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오늘의 경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곳을 사적 155호로, 인근 아산시 읍봉면 어라산에 있는 공의 묘소를 사적 112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전 내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유물관에는 일생기록인 삼 경도와 국보 76호인 난중일기, 보물326호인 장검 등이 전시되어 있다. 경내에는 이 충무공이 살던 옛집, 활터, 정려 등이 있다.

온양온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백제,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그 역사가 근 1300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온수군(溫水郡)이라 불리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온천의 역할을 수행해온 기간은 600여년 정도로 추정한다. 조선 왕조 때에는 태조, 세종, 세조가 이 곳을 다녀간 기록이 있으며 임금이 와서 머문 온궁이라는 궁전까지 있었다.

『동국여지승람』 '온양군'편에 "읍 서쪽 칠리 지점에 온천이 있다.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어 우리 태조, 세종, 세조가 일찍이 이 곳에 거동하여 머무르면서 목욕하였는데 유숙한 어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콸콸 영천이 솟아나는 것은 활활 타는 화덕이 통함이로다.", "따뜻하게 끓인 물 같고 맑기도 한없으니, 불덩이가 땅속에 묻혀 때로 물이 솟는다네. 고질을 낫게 하

여 만백성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능히 번뇌도 씻어 버려 성체도 조호하시니."라고 적은 것을 보면 예로부터 이 곳의 뜨거운 물이 병을 고치는 데에 쓰였던 듯하다.

온양 온천은 지질이 단상흑운모, 각섬석,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용출되는 온천수의 수온이 58°C 내외의 고온으로 마니타온을 함유한 라듐온천이다. 이 온천은 약 알카리성으로 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유홍업소, 온천수영장 등 주변시설이 잘 발달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연간 4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명소이다.

온양시를 벗어나 남쪽으로 한 십리를 걸어가면 배방면 중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고개를 들면 설화산(오봉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겨울에 눈이 산 위에 쌓일 즈음이면 신비로운 눈꽃이 피어 그 이름이 썩 잘 어울리는 이 산의 동쪽 편으로 조그만 마을이 들어서 있으니, 이 곳이 맹정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맹사성의 고향 쇠일골이다. 맹씨 행단은 맹사성이 살던 고택과 쌍행수, 구괴정을 지칭한다.

옛날부터 쇠를 캐내는 방향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듯하며, 식민지 시절까지만 해도 이 산은 금을 캐는 광산으로 홍청됐었다. 지금은 금이니 쇠의 생산은 없어지고, 이 곳 냇가의 돌이 특수 도로 포장용과 공업용으로 쓰여 좁은 냇가에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다.

고려 공민왕 9년(1360)에 이 곳에서 태어나 조선 왕조 세종 20년(1438)에 죽기까지 팔십 평생을 다섯 임금을 섬기며 살았

던 맹사성은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와 문화 정책을 확립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집은 비가 오면 지붕이 샐 만큼 가난하고 청빈했던 사람으로 전해 오고 있다. 성품이 강직했던 그는 세종 때에 열일곱 해 동안에 걸쳐 충실히 나라 일을 해 오면서 『태종 실록』과 『팔도 지리지』를 만들었으며 민속 가요를 수집하기도 했다.

일흔 다섯살에 관직에서 물러 나와 고향인 쇠일골에 있는 그의 집에서 시를 지으며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얘기하며 하루해를 보냈는데, 바로 이 집이 사적 109호로 지정된 맹씨 행단이다. 이 예스러운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집은 본디 지금부터 630년 전에 고려 말엽의 충신 최영 장군의 집이었다가, 그의 외손녀 사위인 맹사성이 물려받아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지키고 있는 유서 깊은 한옥이다.

집이 북쪽을 향해 앉아 있고, 대청을 한 가운데에 두고 온돌방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도 이 옛 집 앞에는 맹사성이 손수 심었다고 전해지는 오백년이 넘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다. 매년 10월에는 온양문화원 주최·주관으로 ‘맹사성 기념축제’도 열린다.

온양 송악사거리에서 공주로 가는 39번 국도로 6km 쯤 가면 송악면 소재지가 있는데, 그 좌측으로 나있는 우회도로로 들어서서 송남 초등학교와 송악농협 사이길로 1km를 더 가면 외암 민속마을이 보인다.

외암 민속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1999년 12월 28일) 국가에서 지정 보호하고 있는 마을이다.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은 400년의 내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민속마을과 다르게 상업화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마을이다. 60여 채의 초가집과 기와집이 한데 어울려 마을에 들어가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외암 민속마을은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과 더불어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민가 구조 및 가옥 배치 형태를 살펴볼 수 있어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가옥 주인의 벼슬명이나 출신지명을 따서 옥호가 정해졌다고 한다. 호방한 주택에서 이 곳이 오랫동안 이 지방을 풍미하던 반촌이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약 오백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한 예안 이씨 일가가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다.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한 집들이 이끼 낀 돌담을 보면 이 마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돌담너머로 집집마다 뜰 안에 심어 놓은 과일나무 및 마을 입구의 장승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초가지붕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밖에 많은 민속 유물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이참판 댁과 중요민속자료 95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암군수 댁(건재 가옥)은 아름다운 정원과 더불어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장소이다. 마치 농촌의 정취로 고향에 돌아온 것과 같은 푸근 함 마저 주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 곳에서 사극이나 영화 촬영이 종종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온양온천역에서 2.6km정도 떨어져 있는 신정호는 수면적이 92ha이며, 1926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이다. 이 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해 사계절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신정호 주변에는 신정호 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잔디광장, 야영장, 체육시설, 조각공원, 이충무공 동상 등이 있다.

특히 조각공원내에는 조각품과 야생화원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입구의 생태공원은 3천여 평의 부지에 소나무, 철쭉, 영산홍 등 각종 식물 21종이 식재된 자연학습 공원으로 유명하다.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도 적합한 이곳은 심신 단련장, 직장의 단체모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인근에는 민물장어, 닭갈비 등의 토속음식점이 있어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한다.

아산시의 지역 특산품으로는 연엽주, 사슴육골즙, 사과와 배 등이 유명하다. 연엽주는 외암 민속마을에서 근 500년의 세월 동안 뿌리내린 가문인 이참판 댁에서 집안 대대로 빚어온 가주이며,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될 만큼 그 품질이 우수하다. 찹쌀로 빚은 누룩에 연뿌리, 연줄기, 연잎과 솔잎을 넣고 발효시킨 전통주이다. 옛날에 왕에게도 진상되었으며 현재는 외암리 이득선씨가 대를 이어가고 있다.

아산시는 장항선 철도의 관문 도시이자 장차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 수도 서울의 배후 거점 도시이기도 한 이 곳은 세 개의 온천과, 최근에 개발한 테마관광의 노천탕, 각종 유원지, 저수지 등 무려 십여 군데가 훨씬 넘는 천연 및 인공의 뉘시터를 가지고 있어 명실공히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해가고 있다. □